# 한국과 중국 IT 기업의 ESG 경영 비교 연구: 카카오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유종원*, ZHAN WENXIN**, 최정임***, 전순영****
* **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4학년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강사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e-mail: *yjw000824@naver.com, ****syjun@ut.ac.kr

# A Comparative Study of ESG Management between South Korean and Chinese IT Companies: Focusing on Kakao and Tencent

Jongwoen Yu*, ZHAN WENXIN**, Jeongim Choi***, Soonyoung Jun****
* ** Bachelor's Course in Dept. of Convergence Business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Lecturer, Dept. of Convergence Business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rofessor, Dept. of Convergence Business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 약

ESG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가 2004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인 "Who Cares Wins"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발전된 개념이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담은 용어이다. ESG는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에서 기관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IT 기업인 카카오와 텐센트의 ESG 경영 현황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양국의 전체적인 ESG 현황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차이점을 어떤 전략으로 보완해 국제시장에서 유연한 ESG 경영전략을 수행하고 있는지 통찰해 보고자 한다.

## 1. 서론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서 발전된 개념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담은 용어이다. 이 용어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가 2004년 말에 발표한 보고서인 "Who Cares Wins"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2년 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PRI)에서 기관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ESG 요소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신윤선, 김성현, 2024). 기업의 적극적인 ESG의 활동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경영자의 마인드, 그리고 CSR에 친화적인 기업정책만으로 ESG의 투자 규모와 그 성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ESG의 인프라의 확대를 위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물론 금융환경과 주식시장의 규모, 그리고 각종 제도와 규제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개별 기업의 ESG 성과에 따른 해당 기업의 재무 성과와 기업 가치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정책, 제도 등의 특성에 따른 ESG 성과의 외생적(exogeneous) 변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김종희, 2022).

한국과 중국은 국가의 경제 수준과 정치체제가 서로 달라 ESG 전략과 활용이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개별 기업의 ESG 성과 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의 경제,

정책, 제도 특성에 따른 ESG 성과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 나라 기업들의 ESG 전략 차이점을 이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완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ESG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IT 기업들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수준과, 정치체제에서 오는 ESG 경영의 차이점과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2. 한·중의 ESG 동향

### 2.1 한국의 ESG 정책 동향

한국의 기업 공시 의무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이 자율적으로 공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정부도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2020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하고, 그 이행 전략을 발표하였다.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시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이후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표명했다(김자인, 2024). 한국 ESG 기준원(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21년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환경, 사회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ESG 이행과 평가 핵심 공통 사항인 'K-ESG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ESG 관련 정보의 공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MSCI ESG Ratings)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존 한국의 ESG 평가는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다(김성진, 안태혁 2022).

### 2.2 중국의 ESG 정책 동향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고조로 끌어올리고('탄소 피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중국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2060년 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30년간 친환경 산업에 100조 위안, 연평균 5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의 연평균 투자액 187조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계획이다. 중국은 탈(脫)탄소 정책에 ESG의 환경(E)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는 중국 내 모든 기업에 있어 ESG 경영의 핵심 목표가 될 것이다.

2018년 중국의 A주식이 정식으로 MSCI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 방향 신흥시장 지수 및 MSCI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었다. 이는 글로벌 자금의 중국 증시로의 유입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을 위한 ESG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였다(2023. 안지영 외). 2020년 12월 중국 최대 보험 관련 기업 중 하나인 핑안그룹과 중국 경제정보원은 ESG 리스크를 통제하고, 평가 모델 구축,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3개 영역, 10개 범주, 118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된 중국형 ESG 가이드라인인 'CN-ESG 평가 시스템'을 발표하였다(김우경, 2021).

## 3. 카카오·텐센트 ESG의 비교: 차이점

본 논문에서 사례 기업으로 한국의 카카오와 중국의 텐센트를 선정하였다. 카카오와 텐센트는 두 국가의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규모와 자본, 시가총액이 각 국가의 선두에 있다. 두 기업 모두 IT 산업에서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 중이며 국내외 ESG 평가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 3.1 환경(Environment)

카카오와 텐센트는 파리협약회의에 영향으로 환경정책에서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부의 규제 정도와 수행방법의 차이점이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부의 규제 정도와 처벌이 한국 정부보다 강해서 더 강제적인 측면을 띄는 경향이 강하며 두 기업 모두 IT 기업이지만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전략과 방법이 상이하다. 한국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하고 2020년<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NET Net Zero Roadmap'을 발표해 탄소배출을 Scope 1, Scope 2, Scope 3 등 세 가지 범위로 분류하고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Scope 1, 2의 배출량을 40% 감축, 2040년까지 100% 감축을 달성 목표로 하고 있다. Scope 3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21년 대비 17%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카카오는 크루를 모집하거나, 카카오톡의 사용자를 활용해 탄소배출 감축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모두의 행동 그린 디지털'이 있다. 모두의 행동 그린 디지털에서 '모두의 행동'은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에 카카오는 환경 캠페인 '그린 디지털'을 통해 일상 속 디지털 탄소 절감을 위한 행동 3가지를 소개

하였고, 이용자들의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동 인증 1개당 카카오가 1,000원을 기부해 나무를 심어 경기도 연천군에 총 1,026그루를 심어 '그린 디지털 숲'을 조성하였다. 2020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탄소피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중국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기업의 사회 신용을 평가하며 이에 따라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진행하기 때문에 텐센트의 환경 정책은 강조적 성격을 띠며, 텐센트는 탄소감축 전략에서 IT 기업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점이 있다. 텐센트는 탄소 감축을 위해 'CARBON ISLAND'라는 대화형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였다. 2022년 'CARBON ISLAND'는 '푸른 바다를 탐험하고 지구를 보호하라'라는 주제로 해양 생태 보호, 해양 탄소 흡수원 등 환경 보호 개념을 게임을 통해 플레이어 1,024만 명에게 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 3.2 사회(Social)

두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핵심 가치가 다르다. 이는 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상황,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둔다면 텐센트는 전통문화의 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증오 발언 근절을 목표로 한 원칙을 공표,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가려주는 AI 세이프 봇을 적용했다. 2022년에는 정확도와 성능이 개선된 세이프 봇 V2를 적용해 삭제된 욕설 댓글이 2020년 하반기 대비 2022년 91.7% 감소해 1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데이터 활용과 함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1> Digital Library Cave

텐센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화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중국의 넓은 땅 특성상 유물을 보존하고, 관람하기에는 쉽지 않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분야에서 혁신적인 응용을 지속해서 탐색하고 있다. 전통문화유산의 다양한 형태를 보존하고 홍보하며 디지털 보호와 계승을 촉진하고 있다. 전통 유물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대중들이 그 배경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림 1>과 같은 'Digital Library Cave'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중요한 문화 유물을 디지털로 복제하고 전시해 많은 중국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 3.3 지배구조(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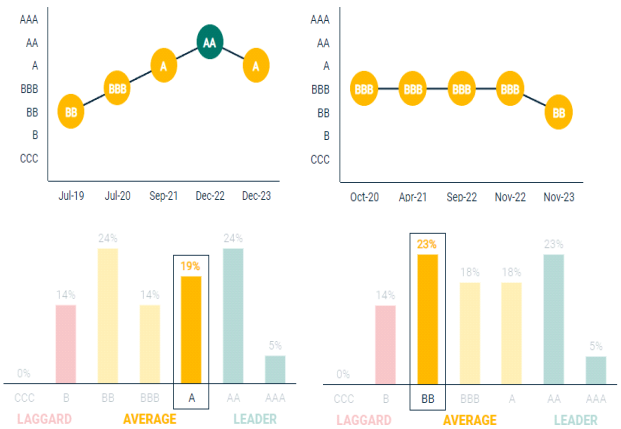
양사의 지배구조적인 측면은 거의 동일하지만 특징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기업의 사회 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진행한다(김종희, 2020). 그럼으로 텐센트의 지배구조 정책은 공정경쟁, 자금 세탁 방지 등 청렴한 경영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에 영향력이 크다. 카카오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이사회·위원회 운영, 주주 권익 보호 등 업무처리 기준과 경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강나연, 김주태, 2021). 카카오는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윤리 규정은 모든 크루에게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여,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 외관상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한다.

텐센트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윤리를 준수하며 <선샤인 코드 행동 규범>, <부정행위 신고 제도>, <민감 직위 관리 조치>, <공정경쟁 지침> 등의 규제안을 제시하고, 독점과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새로 개정된 중국의 <반독점법> 및 형법을 포함한 기타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지침을 업데이트해 청렴한 기업 문화와 직원 행동을 유도한다. 2023년에는 텐센트의 모든 직원이 선샤인 코드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했다. 개정된 선샤인 코드에선 '텐센트의 레드라인'에 따라 관리자의 책임과 행동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해외 임직원을 위한 영문판을 제작했다.

## 4. ESG 평가 분석

<그림 2>와 같이 카카오의 MSCI 평가 등급은 2017년 B

등급에서 점차 상승해 2021년 A등급, 2022년 AA등급, 2023년 A등급을 받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 서비스 산업 내 25개 기업 중 평균 수준이다. 한국 ESG 기준원의 KCGS 평가에서는 2020년까지 B+등급을 유지했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한국 기업 선두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환경 분야는 2019년 D등급에서 2021년 A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S&P Global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024년 Top 1%로 평가되었다.




<그림 2> MSCI 평가 (좌: 카카오, 우: 텐센트)

<그림 2>처럼 텐센트의 MSCI 평가 등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BBB 등급을 유지하다가 2023년 BB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 서비스 산업 내 61개 기업 중 평균 수준이다. Sustainalytics(risk rating) 지수는 19.3으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소프트웨어 & 서비스 산업 내 1,104개 기업 중 339위를 차지하였다. S&P ESG Score 49점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 모두 산업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 5. 결론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해선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환경, 사회적, 지배구조 등 세 가지 측면을 핵심가치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야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별 기업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가, 정치체제, 문화가 주는 외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어렵고 사례 연구 또한 매우 드물다. 양사를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비교분석 했을 때 공통점도 존재했지만, 정치체제 및 경제구조 들에 따른 차이점 또한 명확했다. 텐센트는 카카오보다 중국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는 사회적 신용 제도로 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카카오는 자율적인 상태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간다면 텐센트는 정부의 틀 안에서 ESG 경영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텐센트는 IT 기업의 유연성을 활용한 ESG 경영으로 MSI 점수는 하락했음에도 평균을 유지하거나 동종업계에서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즉 차이점을 보완해 ESG 경영을 운영한다면 국제 시장에 맞는 ESG 경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SG 경영이 국제 시장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더 많은 외재적 요인에 대한 연구와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한 ESG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신윤선, 김성현(202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ESG 디자인전략 비교 연구.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9(3), 423-432.
2) 김종희(2022). 아시아 주요 국가 기업들의 ESG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국제금융연구, 12(1), 43-70.
3) 김자인(2024).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교통부문의 주요 과제. 월간 공공정책, 220, 23-25.
4) 김성진·안태혁(2022). ESG 경영의 현황과 과제-한· 일 철강산업의 현황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77, 235-262.
5) 안지영 외(2023).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 협동연구총서
6) 김우경(2021). 임팩트 온. “K-ESG 전에 중국 CN-ESG가 있었다. 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6.
7) 김종희(2020), 기업의 규모별 특성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치 간의 비선형 관계를 유발하는 임계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제11권 2호, pp. 207-233.
8) 카카오 2020-2022년 ESG 보고서
9) 텐센트 2020-2023년 ESG 보고서